

“특수전부대, 어떤 임무도 한 치 오차 없이 완수해야”

합참의장, FS 연합연습 현장지도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황 보고
대테러작전부대 707특수임무단도 점검

김승겸 합참의장은 21일 ‘2023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에 매진하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찾아 전시 임무 수행능력과 팀워크 향상에 여념이 없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전시 지휘소에서 한미 지휘관·참모들에게 FS 연습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동맹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특수전부대는 적의 전쟁 수행의지를 억제하고 말살시킬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어떠한 임무를 부여해도 한 치 오차 없이 완수해야 한다”며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유사시 필요한 작전능력과 태세를 완성시켜 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적은 반드시 다시 도발할 것이며, 무모하고 무도한 적 도발과 침략에 철저한 대비와 단호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대테러작전부대인 707특수임무단으로



김승겸(맨 오른쪽) 합참의장이 21일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찾아 대테러작전부대의 즉응태세를 점검한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합참 제공

이동한 김 의장은 고도의 전투기술과 협동이 요구되는 대테러 훈련(FTX) 현장을 확인하고, 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고조되고 있는 적 도발 위협을 고려해 수도권·후방지역

테러 등 다양한 적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테러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 적과 테러범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벽히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장의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

령부 방문은 증대되는 적 위협·도발에 대비해 작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FS 연합연습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서현우 기자

해상 함정 승조원 응급상황 시 원격진료로 신속히 처치

LTE-M 활용 의료 서비스 시범운영
최대 100km까지 군의관 영상통화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함정 승조원들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다.

해군은 21일 “해양수산부(해수부)와 협업해 LTE-M을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달부터 함정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군의관의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서 함정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군은 그동안 도서지역 근무 장병을 위해 섬과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격오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함정 승조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망 통신거리 한계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군은 LTE-M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LTE-M은 해수부가 해상에 구축한 무선통신망으로,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곳까지 통신이 가능하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함정 승조원과 의무사 의료종합상황센터 군의관이 실시간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군은 오는 11월까지 군의관이 편승하지 않는 함정 3척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LTE-M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욱(대령) 해군본부 의무실장은 “원격의료 서비스는 해군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신속한 초기 처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군 의료체계



해군 함정 승조원들이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과 영상통화를 하며 원격의료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개선을 적극 추진해 장병들이 오직 전투에만 전념하는 전투형 강군 확립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

동원훈련 현장 살피고 예비군과 소통의 시간

이기식 병무청장, 해군2함대 방문
감염병 대응 등 안전 실태도 확인

이기식 병무청장은 21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해군2함대 동원훈련장을 찾아 훈련에 매진하는 동원예비군과 부대 관계자를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청장의 방문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동원훈련이 4년 만에 정상 시행되면서 감염병 대응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 청장은 국방개혁 추진 등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 서해 및 수도권 해안 방어를 책임지는 부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가·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식(맨 오른쪽) 병무청장이 21일 해군2함대 동원훈련장을 찾아 예비군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이 청장은 “군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동원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제 221005-중-145377호

EYE REUM 아이리움 안과의원

스마일수술
라섹수술
근시 난시 노안라식

빠른 회복 · 안전 · 당일 수술 지향

강남역 2번 출구 바로 연결
강남역 02-3420-2020
https://eyereum.com

국방·안보의 모든 것

KOOKBANGdema.kr

인트라넷 kdd.dema.mnd.mil